

특허청, '첨단산업 핵심소재' 탄소산업 지원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주)수테크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3. 7.) -

특허청은 3. 7.(목)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탄소산업 선도연구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탄소기업인 (주)수테크(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친환경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과 지재권 주요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특허청은 탄소소재 분야 특허동향과 심사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분야 지재권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주)수테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특허전략개발원의 공공분야 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공분야 IP 경영전략 및 활용 지원사업

특허청 서울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탄소소재 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탄소소재는 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소재이므로, 관련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	책임자	과 장	좌승관 (042-481-5534)
		담당자	사무관	신창훈 (042-481-5487)